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월간지



VOLUME 295 | JANUARY 2022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1월호 / 통권 295호

발행일 2022년 1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295 | JANUARY 2022

Editor's Note	4
함께 읽는 성경	6 사랑이란!
전례와 생활	10 미사 바로 알기 (3) - 참된 예배를 위한 준비
	14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18 지구, 우리 공동의 집
신앙과 삶	22 부모 모시기, 동상이몽
듣다 읽다 보다	26 고전 음악을 듣다
	32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38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42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46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News & Views	50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 THE COVER

모든 신앙인들의 보호자 성모: (중세시대에 흑사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이 모양의 조각과 성화가 많이 제작)

출처: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소장



동방박사의 경배(마태 2.1-12) | 출처 : 서울대학교 사제평생교육원 소장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새뜻하다(새롭고 산뜻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가슴 벅찬’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쓰곤 했었는데, 올해는 차마 그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2021년 12월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80% 넘게 달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식이 우리를 확고히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여기까지 왔고,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다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올해는 정치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란 두 차례의 큰 선거가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대선이 있는 3월 9일과 지방선거

가 있는 6월 1일에 같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평화,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할 때 최고의 정치 행위인 선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임을 기억합니다. 또한, 올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9월), 카타르 월드컵(11월)이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스포츠의 해이기도 합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이 있지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핑계로 그동안 소홀히 한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보셨는지요? 스포츠 선수들처럼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갈고 닦는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옛 선비들은 자기 닦음에 철저했습니다. 대학의 팔조목은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입니다. 큰 배움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덕들입니다. 선비들은 아홉 가지 바른 생각(九思)과 아홉 가지 바른 몸가짐(九容)을 유지하려고 늘 경계했습니다. 발걸음을 가벼이 하지 않기, 손을 공손하게 맞잡기, 눈을 단정하게 뜨기, 입을 다물고 있기, 말소리를 고요하게 하기, 머리를 곧게 들고 몸을 바르게 하기, 호흡을 가지런하게 하기, 의젓하고 품위 있게 서기, 얼굴빛을 명랑하고 점잖게 유지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수련 혹은 수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5,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실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했듯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야고 2,26)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허위의식일 따름입니다.

코로나19로 흐트러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피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끊음), 더러운 것을 닦아내야 하고(씻음), 지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향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낌과 존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기 위해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기(生氣)를 불어넣으시어, 우리 사회에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심는 자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우식 신대리(신학)

서울대학교 직장사목팀 본부장

## 사랑이란?!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 1. 사랑의 정의

⋮

1고린 13장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은 1)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 2) 부모나 스승, 또는 신(神)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나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열렬히 좋아하는 이성의 상대를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한다. 또한 사랑이란 단 어처럼 우리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말은 없을 듯하다. 사랑이라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사랑은 인간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정서이다.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기쁨에 떨고 행복을 느끼며 또한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희생을 감수하기도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과연 사랑에 대한 정의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방식이나 태도, 그리고 사랑의 경험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만약 인생에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삭막해질 것이다.

### 2. 성경의 사랑

⋮

요한이 보낸 첫째 편지

3장을 읽어보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는 학문적 연구의 결과나 관념적 사상이 아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생생하게 몸으로 겪어내고 체험한 진리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먹고 숨쉬고 웃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삶의 생생한 현장에서 체험한 실제적인 경험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랑은 학문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험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에 대한 지식이 다르다.

성경은 하느님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인간적 사랑을 비유와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마태 7,9-11) 따라서 사랑이란 말은 하느님에게뿐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또한 사랑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이 가야하는 참된 삶의 길로 제시한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해진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한다.(여호수아 34,2-3 ; 탈출 34,6-7) 또한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속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한다.(루카 8,1-3)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가르친다. (루카 9,22; 17,25 ; 24,7)

### 3. 하느님을 사랑하라

⋮

신명기 6장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메두짜라고 부르는 이마와 왼쪽 팔에 성경구절을 적은 양피지를 넣은 작은 성구갑을 차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성구갑이란 유대인들이 특히 기도할 때 이마나 왼쪽 팔에 끈으로 매었던 조그만 상자였다. 유대인들이 성구갑을 이마와 왼쪽 팔에 차는 것은 머리로는 율법을 생각하고 왼팔 뒷부분이 닿는 심장으로는 율법을 사랑하겠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관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성구갑안에는 성경 구절을 쓴 양피지 조각이 들어 있었다. 성구갑 안에 담겨 있는 성경 구절들은 모세오경의 탈출기 13장 1-10절과 11-16절, 신명기 6장 4-9절과 11장 13-21절이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성구갑을 착용하고 다녔던 것이다. 성구갑은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성구갑에 보물처럼 모셨던 말씀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귀절이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라”(신명 6,5) ‘쉐마’(이스라엘아, 들으라!)라 불리우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근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야로 암송했다. 일명 ‘쉐마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모든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최소 두 번 낭송해야 한다.

4. **이웃을 사랑하라**  
 :  
 루카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다.(신명 6,5)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이다.(레위 19,18) 겉으로 보기에는 두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의 경우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레위 19,1-37; 신명 6,4-13) 또한 이웃이란 단어도 확실히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일찍부터 타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율법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로 연관시키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십계명과(탈출 20,12-17) 계약법전(탈출 22,20-26)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했다는 증거이다. 특히, 모든 예언자들은 가난한 사람, 억울하고 힘없는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한다.(아모 1장-2장; 이사 1,14-17) 인간에 대한 사랑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응답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친절만으로 부족하다. 영육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애덕이라고 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초자연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은 원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미사 바로 알기 (3) - 참된 예배를 위한 준비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사제가 봉사자들과 함께 제단에 이르면 인사를 하고 사제는 제대 앞에 섭니다. 제대는 미사의 중심 장소로서 성찬의 전례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대에 친구(親口)를 하거나 깊은 절을 하면서 깊은 공경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제는 주례자석에서 교우들과 함께 십자 성호를 그으며 시작 예식을 이어갑니다.

### 신심의 표지인 십자 성호

십자 성호는 일찍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심을 표현하던 소중한 동작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오늘날 복음을 듣기 전, 세례나 견진성사에서 축성 성유를 바를 때, 재의 수요일에 이마에 재를 바를 때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십자가를 긋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형태가 14세기 이후에 현대의 형태로 널리 퍼지면서 전례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십자 성호를 그으며 읊는 경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는 초세기 세례 때의 신앙고백문에서 발전한 것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세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제와 신자들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현재화하는 미사 전례에서 십자 성호를 통해 거룩한 삼위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각자의 세례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신앙 고백 행위와 함께 회중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미사를 시작합니다.

### 은총과 축복의 인사

성호경을 바친 다음 사제는 미사에 참여한 회중을 향해 인사합니다. 이 인사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리스도적이고 전례적인 인사입니다. 개정된 미사 경본이 제시하고 있는 인사의 양식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양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2코린 13,1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로마 1,7 등),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판관 6,12; 루카 1,28 등)가 그것입니다. 이는 초대 교회에서 사용하던 인사로서,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건네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의 경우, 개정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를 따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로 번역했지만,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번역 지침에 따라 지금의 형태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제의 인사에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합니다. 개정 전에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번역해 사용해오던 이 응답 역시, 사제직을 위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의미를 살리고 라틴어 원문 ‘영(spiritus)’에 대한 충실한 번역으로 새롭게 수정되었습니다.

사제와 신자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미사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 또한 그분께서 머무시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 합당한 예절을 위한 준비

참회 예절은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함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하고, 올바른 마음의 준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거룩한 신비를 거행하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자신의 죄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세리(루카 18,13)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1요한 1,9)라는 말씀처럼, 고백은 우리를 벌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향하게 해줍니다.

참회 예절은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마태 5,23-24)에 따른 것으로 초세기 문헌인 「디다케」에서도 그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 미사에서는 세 가지 양식을 제시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양식은 가슴을 치는 동작과 함께 고백의 기도를 담은 첫 번째 양식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라는 기도는 생각과 말,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함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善)을 실천하는 의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닮아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 하느님 자비에 의탁함

그리스말 키리에(Kyrie)라고도 불리는 자비송은 참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외침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보면 치유와 도움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태 9,27; 20,30-31)라며 청하고, 열 명의 나병 환자 무리도 똑같이 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루카 17,13) 우리는 자비송을 통해 복음의 인물들처럼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개인적인 고민들, 나약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죄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찾고 청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께 자비를 청하며 위안과 힘을 얻었던 이들과 하나가 되고 같은 은총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청하며 그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 기쁨과 환희의 노래

글로리아(Gloria)라고 불리는 대영광송은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고귀하고 오래된 찬미가입니다(미사경본 총지침 53항). 이 노래가 본격적으로 미사 안에 들어온 것은 11세기 경이지만, 이미 4세기부터 기도와 전례 중에 불렸습니다. 대영광송을 통해 전례 분위기는 참회에서 기쁨 가득한 찬양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소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 대한 찬양은 기쁨에 찬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기쁨과 축제의 의미 때문에 절제와 기다림의 시기인 대림과 사순 시기에는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 시작 예식을 마치고 말씀의 전례로

대영광송을 노래한 뒤에 사제는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며 미사에 참석한 이들을 잠시 침묵으로 초대합니다. 신자들은 각자 마음속 기도를 바치고, 사제는 이러한 회중의 기도를 하나로 모아 하느님께 바칩니다. 사실 ‘본기도’라고 번역한 ‘Collecta’의 본래 라틴어 의미가 ‘모음, 혹은 모임’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하느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각자의 필요한 은혜를 하나로 엮어 간청하는 이 기도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례 시기나 그날의 전례를 잘 요약하는 이 기도를 끝으로 시작 예식의 모든 요소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신비로 향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비로소 본격적인 예배(말씀 선포와 성찬 나눔)로 향합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성 아벨

St. Abel (축일: 1월 2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 작은형제회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창세 4,9)

성경이라는 종교문학에서 처음으로 묘사한 인간의 잔인성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같은 피를 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기심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며, 최악의 본성이 그런 냉정함이라는 점을 교훈적으로 시사해 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체 왜 인간은 죄악을 그리도 무정하게 범하는 것일까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인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이루기보다 죄를 범하기가 그리 쉬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주려고, 등장하는 형제의 이름을 ‘카인(Cain)’과 ‘아벨(Abel)’로 설정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 두 인물의 이름이 지니는 본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아벨’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하여 같이 나누길 희망합니다.

먼저 두 인물의 이름은 모두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카인(קַיִן)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창(spear, 획득권(acquired))’라는 뜻을 지닙니다. 형으로서 지니는 위치와 카인이 저지른 근친살인의 범죄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아벨’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원래 헤벨(אֵבֶל)이라고 하여, ‘숨(breath), 바람(win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이 숨 한번 꺼지면 사



라지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인생임을 묘사하는 이름입니다. 형인 카인은 자신의 시기심으로 아벨을 들로 꼬여내어 살인을 저지릅니다. 순진하였던 아벨은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신약성경에서는 아벨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칭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느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히브 11,4)

그러므로, 아벨의 죽음은 그저 잔인한 형의 시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



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순교로 여겨졌고, 현재까지도 아벨의 죽음과 유사한 죽음을 당한 이들을 두고, 예언자 내지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보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이름에는 언뜻 보기에는 ‘인생무상’과 ‘허무함’이 있다고 비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상 그 이름에는 “그 열이 나가면 흠으로 돌아가고 그날로 그의 모든 계획도 사라진다”(시편 146,4)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성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질 우리의 인생에서 카인처럼 자기 의지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벨처럼 설령 죽임과 핍박을 겪을 지라도 인생이 나아가야 하는 ‘부르심(Destiny)’에 대해 깊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낙천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여러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지만 죽기까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낙관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영원히 살아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알아주시다니! 인간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헤아려 주시다니! 사람이란 한낱 숨결과도 같은 것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시편 144,3-4) 🕊



## 교우회 소식

### 2021 송년미사 및 감사장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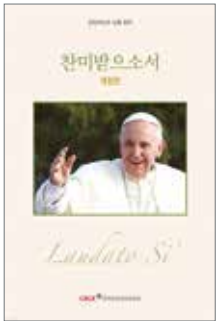
지난 12월 9일(목) 파밀리아 채플에서 2021년 직장사목팀 송년미사 및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분이 참석 하였고, 총 43분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져 교우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 지구, 우리 공동의 집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몇 년 전 ‘지구 사진작가 안의 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안 아르투스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이 열기구와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촬영한 세계 곳곳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은 희미해지고 여기저기 연결된 강줄기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더군요. 서로 다른 우리는 그렇게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더불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Our Common Home).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의 지구가 고향이며 인류는 공동의 집에 사는 한 민족”(164항)이라고 말씀하시며 지구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를 요청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관

점에서, 마치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우리가 사는 곳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하느님의 집

‘공동의 집’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건설 회사가 짓지만, 지구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곳입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자기 재산으로 여기지만, 지구는 그 어떤 사람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라는 행성을 하느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이곳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손수 창조하신 그 공동의 집 밖에 머물러 있는 무심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인 동시에 당신 창조 세계 안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동의 집 지구는 하느님의 창조물이자 그분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집은 단순히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이 지구 전체, 온 우주가 그분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하느님의 집에서 그분께 부여받은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 모든 창조물의 집

‘공동의 집’이라는 화두는 또한 지구가 모두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산과 강, 바다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이곳에는 소나무에서 개미, 참새, 사자, 그리고 인류에 이르기까지 경이로울 정도로 다양한 종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을 위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힐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만이 중요한 존재인가?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일까? 이 공동

의 집에 사는 다른 창조물들의 권리는 무엇일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를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이 함께 사는 ‘우리 공동의 집’으로 생각하면 나를 넘어 너를 볼 수 있는 내적 여유가 생긴답니다. ‘개구리, 참새, 진달래..., 너도 나처럼 같은 집에 살고 있구나. 그들도 우리처럼 하느님의 집 안에 함께 사는 한 식구이지. 그렇다면 이 집을 돌보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나의 시선이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 넓어질 때, 공동의 집을 돌보는 우리 손길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지구, 호텔(hotel)이 아닌 집(home)

우리는 광대한 우주 속 작은 오아시스 같은 곳, 푸르게 빛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이 집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지구를 단 하나뿐인 ‘집(home)’이 아니라 잠시 빌려 사용하는 ‘호텔(hotel)’처럼 여겼습니다. 지구를 호텔처럼 보는 관점에서는 효용성이 우선이겠지요. 어차피 잠시 머물다 갈 곳, 내게 편리하면 그만이지 굳이 애착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웠던 우리 공동의 집은 자꾸만 황폐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의 집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현실을 직시”(61항)하고, 지구를 호텔이 아닌 우리의 집, 곧 가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에 ‘관광객’으로 잠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구를 자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네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일이니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보금자리를 가꾸고 돌보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동의 집, 환경이 아닌 생태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강조하는 ‘공동의 집’이라는 주제는 결국 우리가 ‘환경’ 패러다임을 넘어 ‘생태’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초대합니다.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는 ‘생태(eco)’라는 용어의 어원이기도 한데, 그래서 생태는 ‘온 생명계의 거처’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태’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을 둘러싼 바깥 세계를 가리키는 ‘환경(environment)’이라는 말과는 차이가 있지요. 곧 ‘환경’이라는 용어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 머무르는 데 반해, ‘생태’라는 말은 우리네 관심을 모든 창조물이 속한 ‘공동의 집’으로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는 ‘생태’라는 말이 ‘환경’이라는 말보다 더 자주 더 비중있게 사용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의 집을 좀 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바라보자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칙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태적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지구는 우리 자신과 따로 분리된 것도, 단순히 우리를 위한 배경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구는 하느님의 집, 모든 창조물의 집, 하나의 생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공동체, 대가족의 집을 함께 가꾸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이 누구의 것인지,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생태적으로 생각해 보니,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저희들이 지구를 단지 환경으로 바라보며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공동의 집으로 바라보며 함께하는 ‘생태적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지구를 돌보는 ‘환경보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공동의 집을 생동하게 하는 ‘생태적 돌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만이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가치가 귀하게 존중받는 날이 오게 하소서.” ☪

## 부모 모시기, 동상이몽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 삶을 바라본다.

작년 1월 갑자기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고 재활전문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던 요셉피나의 어머니는 입원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증상과 인지능력 저하로 상태가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면회 또한 제한되다 보니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도 커지는 듯했다.

그러던 중 요셉피나가 계약 기간 만료로 일을 쉬게 되면서, 둘째 언니의 의견에 따라 어머니의 인지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퇴원 후 가정간호를 해 보기로 했다. 작은언니가 근무하는 낮에는 요셉피나가, 나머지 시간에는 둘째 언니가 병간호를 하기로 하고 둘째 언니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

문제는 퇴원 당일, 2년간 거의 왕래하지 않던 올케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자청하면서 생겨났다. 사업을 핑계로 집을 나가 그간 집안 대소사며, 명절에도 왕래가 없었고, 수술이나 입원 기간에 면회 한 번 온 적 없던 올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고맙게 느껴지기보다,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첫째 언니는 올케에게 어



머니의 병간호를 맡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입원치료받기를 원했으며, 요셉피나와 둘째 언니 또한 올케의 병간호를 반대하면서, 오빠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 Question

형제들과의 갈등을 겪어본 경험과 이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형제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가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질 수 없듯이, 사랑도 갈라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마음은 다시 닫히고 굳어져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스며들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리게 된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840항]

#### 5. 실천계획을 세운다.

####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 함께보면 좋은 자료

프란치스코 교황님 십계명에 관한 교리 : 9. 부모에게 효도 하여라 “부모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공경 하십시오”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18-09/pope-francis-general-audience-fourth-commandment-parents.html>)

Cornerstone



입당송 | Gaudeamus omnes (모두 함께 기뻐하세)

Graduale Aboense, hymn book of Turku, Finland. 14th-15th century.

####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 라틴어: cantus Gregorianus)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에페 5,19-20)

‘성가는 종교의 구분 없이 거룩한 노래를 뜻하나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톨릭 미사나 기타 전례 또는 예식 때 부르는 찬양의 노래이다. ‘찬송가(讚頌歌)’라고 부르기도 하며, 구약의 시편 150곡을 가리키는 ‘성시(Psalms, 라틴어: Psalmus)’나, 구약성서에 나오는 시편 이외의 노래나 신약의 시 형태의 노래를 가리키는 ‘찬가(canticle, 라틴어: Canticum)’와 구별한다. 그레고리오 성가로 전승된 로마 성가와 동방에서 전승된 비잔틴 성가가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가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정의한 바 있고, 또한 “성가를 한 번 잘 부르는 것이 기도를 두 번 하는 것과 같다.”고 성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가톨릭 교회 음악의 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훌륭한 성가이며 가톨릭 교회의 재보로 여겨지고 있다. 7세기 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 때 교회 전례를 확립하면서 구전되어 오던 성가를 집대성한 단선율의 전례 성가로 오늘날 음악사에 있어서도 그 뿌리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음악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이전까지의 흩어진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최초의 성가집 『리베르 안티포나리움』(라틴어: Liber Antiphonarium)을 편찬한 성 그레고리오 1세 대교황(St. Gregorius I Magnus, 540-604)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단선율로 이루어져 있고 장식적인 멜로디와 유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성가이다. 무반주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교회에서 성가 중에 으뜸이 되는 노래로서 공식 인정되었고 적극 장려되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개혁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19세기에 이르러 중세기 선율(旋律)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레고리오 성가의 부흥이 일어났다. 1928년 교황 비오 11세는 교령을 통해 이 성가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도원이나 신학교, 그리고 일부 교구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그리고 교구차원의 성음악연구소에서도 그레고리오 성가는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고전 음악을 듣다

생상스 -

‘디에스 이레(Dies irae)’와 부활의 음악 교향곡 3번 ‘오르간’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낭만파 음악가들이 베토벤의 후계를 자처하며 교향곡을 내놓았지만 서서히 전통적인 교향곡의 인기가 저물어 갈 때, 바그너의 ‘음악극(Musikdrama)’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여 전 유럽을 폭풍처럼 휩쓸었다. 그러나 생상스(Charles-Camille Saint-Saëns, 1835-1921)는 전통적인 교향곡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였다. 그는 베토벤처럼 ‘절대음악’과 ‘프로그램음악’을 명쾌하게 구별하고, 절대음악 위에 전통적인 교향곡을 부활시키고자 생각하였다. 생상스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아무런 음악 외적 요소가 없어도, 단지 c단조의 어두운 그늘에서 환한 C장조로의 여행만으로도 인간의 운명에 대한 영웅적인 투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채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드디어 1886년 생상스는 **교향곡 3번 c단조 Op.78**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1악장의 c단조에서 4악장의 C장조로 가는 명확한 승리의 여정이지만, 생상스는 처음에 하나의 ‘단서(clue)’를 주고 이것을 쌓아올려 ‘부활’을 지향하고 있어 비교된다. 생상스의 그 단서가 바로 ‘디에스 이레’(Dies irae, 번역하면 ‘분노의 날’)로 원래는 중세 13세기의 ‘단선율 성가(그레고리안 성가)’ 가사였다. 후에 점차 죽음과 종말론을 상징하게 되어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죽은 자를 위한 미사(레퀴엠)’에 정착되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디에스 이레’는 많은 음악가들이 중세의 선율과 가사 그대로 차용하기도 하고, 모차르트처럼 중세의 성가 선율이 아닌 자신만의 곡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가사와 함께 과거의 단선율 성가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레퀴엠이 아닌 곡에서도 단순한 단선율 성가 디

Poulenc Concerto in G minor for Organ, Strings and Timpani  
 Saint-Saëns Symphony No. 3 in C minor (Organ)  
 Yannick Nézet-Séguin conductor  
 James O'Donnell organ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0081  
 © 2014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td  
 Recorded live at Southbank Centre's Royal Festival Hall, London, on 26 March 2014.  
 Total playing time 58:05  
 DDD Stereo  
 Released November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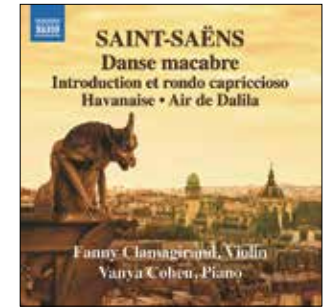
에스 이레를 그대로 차용하면, 바로 자신이 의도하는 음악적 표현이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지난 호에 소개했던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5악장에서 주인공의 무덤 위에서 춤추는 마녀들의 춤에도, 프란츠 리스트의 관현악과 피아노를 위한 ‘죽음의 무도(Totentanz)’에도 중세의 ‘디에스 이레’가 그대로 나온다. 물론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배경음악으로 써서 유명해진 생상스의 교향시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도 그러하다. 19세기에 들어서 레퀴엠에만 쓰였던 중세의 그레고리안 성가 ‘디에스 이레’가 레퀴엠을 넘어서 자유롭게 죽음의 상징으로 쓰였던 것이다.

따라서 먼저 그레고리안 성가의 ‘디에스 이레’를 들어보시길 권한다. 높낮이가 뚜렷한 단선율로서 라틴어 단어는 강세가 뚜렷하고, 거의 철자 그대로 발음되므로 비교적 쉽게 들린다. 서구 언어는 주문장이 앞에 오고 부분장이 뒤에 오므로, 우리 언어의 문맥을 무시하고 병렬적으로 주문장-부분장의 순서로 그대로 직역하여 들으면 바로 그 의미도 파악된다(오직 음악 감상을 위해 단어 그대로 직역하였고, 연결되는 라틴단어를 쉽게 파악하도록 영문 번역도 참고로 실었다).

Dies irae, dies illa,	분노의 날, 그 날. The day of wrath, that day,
Solvat saeculum in favilla,	세상을 모두 재로 변하게 하리라, Will dissolve the world in ashes,
Teste David cum Sibylla.	다윗과 시빌의 예언하였던 것처럼. As foretold by David and the Sibyl!
Quantus tremor est futurus,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How much tremor there will be,
Quando judex est venturus,	심판관이 내려오실 때, when the Judge will come,
Cuncta stricte discussurus.	모든 것을 엄히 분별하실텐데. investigating everything strictly!
Tuba mirum spargens sonum,	나팔에서 놀라운 소리가 울리며, The trumpet, scattering a wondrous sound,
Per sepulcra regionum,	세상의 모든 돌무덤으로, through the sepulchres of the regions,
Coget omnes ante thronum.	보좌 앞에 모이게 하리라. will summon all before the Throne.
Mors stupebit et natura,	죽음이 엄습하고 만물은 진동하리, Death and nature will marvel,
Cum resurget creatura,	모든 피조물이 깨어날 때, when the creature arises,
Judicanti responsura.	심판관께 답변하기 위하여. to respond to the Judge.

SAINT-SAËNS, C.: Violin and Piano Music, Vol. 3 - Transcriptions  
(Clamagirand, V. Cohen)

Composer(s): Saint-Saëns, Camille  
Artist(s): Clamagirand, Fanny; Cohen, Vanya  
Release Date: September 10, 2021  
Duration: 01:07:56  
Label: Naxos  
Genre: Chamber Music; Instrumental  
Period: Romantic  
Catalogue No: 8.574314  
Barcode: 747313431472



자, 이제 중세의 단선율 성가 ‘디에스 이레’의 선율에 익숙해졌으면, 생상스의 오르간 교향곡 1악장부터 들어보자. 생상스 스스로 표현한 대로 1악장은 ‘침울하고 불안한’ 악장인데, 이러한 분위기는 중간부 ‘아다지오’에 이르러 중단되고 멋진 화려한 주제가 등장한다. 생상스 스스로 ‘아주 조용하고 명상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함은 곡의 단서에 해당하는 ‘디에스 이레’가 등장하면서 깨진다. 생상스 스스로 불협화음이 증가되면서 불안한 분위기로의 회귀라고 하였다. 단서이니만큼 다시 2악장 ‘스케르초’에 ‘디에스 이레’가 등장한다. 전보다 더 불안하여 악마적이고 짓궂게 들린다. 그러다가 곡 전체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한다. 비록 이미 1악장 전반부의 불안함이 후반부 평온한 아다지오로 바뀌는 작은 전환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그늘에서 양지로 바뀌는 확고한 전환점이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오르간이 연주하는 C장조의 ‘디에스 이레’로서 완벽한 승리의 함성으로 전환된다. 이 오르간 주제를 피아노가 눈부시게 아르페지오로 반주를 덧붙이며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보통 전통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하프’라는 악기 대신에 생상스는 피아노를 사용하였다. 오르간의 승리의 주제가 변주되자마자 바로 트럼펫이 가세하면서 ‘디에스 이레’의 가사 중 ‘Tuba mirum spargens sonum, (나팔에서 놀라운 소리가 울리며,)’로 시작하는 부분을 강조한다. 이렇게 당시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오르간을 사용하여 종교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다. 여기서 생상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단서로 제시한 c단조의 미완성의 ‘디에스 이레’가 C장조로 완전체로 바뀌면서 “죽음이 부활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생상스의 오르간 교향곡으로 베토벤이 추구한 절대음악으로서의 교향곡의 장르는 다시 재탄생되었다. 악보에는 2악장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악장은 뚜렷하게 전환점을 가지고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므로, 전통적인 4악장의 형식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생상스는 ‘프랑스의 베토벤’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3살 때 첫 작곡을 하여 당시에는 ‘프랑스의 모차르트’라고 불릴 정도였고, 음악을 넘어서 미술, 철학, 고고학, 식물학, 지질학,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전문가(예를 들면 프랑스 천문학회의 정회원으로 논문도 발표)로 인정받는 르네상스적 천재였다. 생후 3개월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절대음감을 가진 음악천재로 성장하여 파리음악원을 졸업하고 성당 오르간 주자로 취직하였다. 빼어난 즉흥연주로 신자들을 자주 황홀경에 빠뜨릴 정도로 재능을 보여 드디어 당시 최고의 제국교회 마들렌 성당에서 1858년부터 1877년까지 봉직하였다. 우연히 프란츠 리스트가 그의 즉흥연주를 듣고 ‘세계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라고 하였다. 그의 교향곡 3번 ‘오르간’은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피아니스트로서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회를 열어 당대 최고라는 칭송을 받았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니데르메예르(Niedermeyer) 음악원’의 교수로 가브리엘 포레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프랑스-프로이센 전쟁(1870-71)의 패배 후에는 독일 음악에 맞서는 프랑스 음악의 부흥을 기치로 라모, 쿠프랭, 샤르팡티에 등 프랑스 바로크 시대 거장들의 음악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국민음악협회’를 설립하였다. 전통적 교향곡 장르의 부활을 지향하는 그의 성향에서 보듯, 그는 드뷔시와 같은 급진적 음악을 비판하는 까칠한 보

F. Hölderlin: Ode an die Menschheit  
W.A. Mozart: Requiem d-Moll KV 626  
Karl Böhm  
Orfeo • 1 CD • 62min  
Bestellnr.: C 670 051 B  
October 5, 2005

Irmgard Seefried (Sopran), Hildegard Rössel-Majdan (Alt), Anton Dermota (Tenor), Gottlob Frick (Bass)  
Chor der Wiener Staatsoper (Chor), Wiener Philharmoniker (Orchester)



수주의자였다. 1875년 생상스는 40세의 늦은 나이로 19세였던 제자의 여동생 마리 트뤼포(Marie-Laure Truffot)와 갑자기 결혼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지만, 1878년 귀가 중 눈앞에서 장남이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6주 후에는 겨우 7개월된 둘째마저 폐렴으로 사망하자, 1881년 온천여행 중 편지 한 장 남기고 아내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이혼한 것도 아님). 평생을 애견과 함께 스칸디나반도, 카나리아제도, 실론섬, 우루과이, 사이공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를 여행하며 지냈다. 늘 그렇듯 겨울에 따듯한 남쪽을 찾은 1921년 겨울, 알제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하였다. 시신은 알제리 총독의 주관 아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파리로 운구되어 마들렌 성당에서 국장으로 화려하게 장례식이 엄수되었는데, 몽파르나스 묘지로 이어지는 긴 행렬에는 조용히 미망인 마리도 있었다. 필자가 겨울에 학회를 갔다가 생상스의 묘지 근처 모딜리아니가 드나들었던 예술가의 카페 ‘르 돔(Le Dome)’에서 주문한 에스프레소는 생상스 생각에 추위보다 더 시려웠다. ☹️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 성지에 낭만이 가득한 곳도 있다. - 이스라엘 지중해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처음 발걸음을 하였던 지중해변으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약 한 시간 정도(약 60km) 이동하면 텔아비브의 남쪽에 위치한 **야포(Jaffa)**, 야파라고 불리우기도 함)에 다닙니다. 평균 고도 약 750미터의 산지인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이곳에 내려자마자 느끼는 것은 ‘와, 따뜻하다’입니다. 약 4도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바닷가로부터 불어오는 습도 높은 바람이 체감기온을 더 높게 느끼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야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도시입니다. 이집트지역의 나일문명과 이란-이라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고대의 고속도로 비아 마리사(Via Maris 해변길)가 지나가며 발달된 항구도시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대성전과 그의 궁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의 향백 나무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들여온 항구가 바로 야포 항구입

니다. 요나 예언자가 주님을 피해 달아나려고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도 야포 항구이지요. 배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나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어쩔 수 없이 성난 바다를 달래기 위해 요나는 바다에 내던져지게 되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사흘 뒤에 뱉어내게 되지요. 그를 기념하여 이곳에 물고기 동상을 만들어놓았는데 상당히 귀엽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름답다!’라고 할 때 ‘야페!’라고 하는데, 야포 지명이 여기서 왔습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지중해변도시입니다. 구멍이 송송 뚫린 노란 사암으로 만들어진 구도시 골목과 파란 지중해 바다색이 절묘하게 어울립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웨딩촬영을 하는 신혼부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나들이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베틀시장을 비롯해서 길거리 음악회 등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옛날 도시답게 길이 좁고 혼잡해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된 빵집, 골목골목 쉽게 볼 수 있는 작고 별난 가게들, 무엇보다 오래된 건물의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서 25km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보통 성지순례 마지막 코스로 방문을 합니다. 이곳에서 솔로몬 왕, 요나 예언자 말고도 그리스도교인에게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베드로 사도가 환시를 본(사도 10장)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 환시를 통해 하느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새로운 교회에 받아들여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이 집 근처에 그리스 정교회 성당과 수도원, 프란치스코회 성당과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게 봉헌된 이 가톨릭 교회는 지중해 풍경과 잘 어울려야 포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성지순례를 마무리하는 미사를 봉헌하고는 했는데, 지중해변이 주는 특유





텔아비브 항구

의 아련함이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례자들의 마음을 많이 아쉽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포 항구를 지나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미드론 야포 공원이 끝나는 근처에 해산물 식당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곳입니다. 지중해변 아랍식당이라고 할까요? 식탁에 크고 흰 종이를 깔고 작은 접시에 다채로운 소스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뽁뽁하게 펼쳐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횡집 식당과 비슷한 모양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유다교 음식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는 식당이기에 오징어나 새우 혼합 등 다양한 해산물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 북쪽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운 모래가 펼쳐진 해수욕장 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 호텔들을 지나 야르콘 강이 끝나는 곳에 작은 텔아비브 항구가 있는데 이곳은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가지런히 정박되어있는 요트들, 깔끔하게 나무 데크로 이어진 해변 산책길에 카페, 클럽, 유행하는 옷을 파는 상점들이 세련된 지중해변도시의 풍경을 만듭니다. 야포에서부터 7km 떨어진 곳인데 참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더 올라가겠습니다. 두



야포 카페



야포 항구

번째 갈 도시는 지중해의 카이사리아입니다. 지금의 카이사리아는 1940년대에 작은 농어촌 마을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실버타운, 골프장 등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마을이고, 우리가 가는 곳은 고대 도시의 유적이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텔아비브-야포로부터 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서쪽인 지중해 해안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만과 곳이 없는 맛있는 포물선의 모습을 하고 있어 항구를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한참 열성을 올리던 헤로데 대왕이 이곳에 로마식 도시를 만들어버리죠. 콘크리트를 바다 속에 부어 인공적인 만을 만들고



다윗도시 입구

웅장한 등대가 있는 항구를 만듭니다.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목욕탕을 비롯해서 극장, 전차 경기장을 만들고, 부족한 물은 40km 떨어진 가르멜 산에서부터 수로를 잇는 도수교를 지어 해결하였습니다. 휘황찬란한 아우구스투스 신전과 연회장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로마황제-카이사르에게 봉헌한다는 의미로 카이사리아로 명명합니다. 대리석이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인데, 이 국립공원을 가보면 곳곳에 빼어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기둥과 조각 등 건축 잔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이탈리아나 그리스, 터키 등지에서 가져온 것이겠지요. 이것들을 보면 그 당시 이 새로운 도시가 얼마나 반짝이고 아름다웠



카이사리아 도수교



카이사리아 항공사진 (인공항구의 잔해)



카이사리아전차경시장

는지, 도시를 만드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헤로데의 야심작이었던 이 도시는 당시 로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로마총독이 머무는 본부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이 도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비잔틴 시대까지에도 찬란히 빛나던 카이사리아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십자군 시대 이후에 모래 속에 묻혔다가, 1950년대에 히브리대학교의 발굴 시작으로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리아 국립공원은 입구가 두 군데 - 로마 도시(극장) 쪽에 하나, 십자군 도시쪽에 하나 - 있습니다. 십자군 도시 쪽에 차를 세우고 오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도시의 극장은 지금은 반원형으로 남아 있는데, 요즘에도 이곳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실력이 좋아야만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콘서트는 국립공원이 문을 닫을 무렵, 노을이 가득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참으로 낭만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콘서트 참여는 못하지만 일반 방문객들이 텅 빈 무대에서 공연자-관람자 역할을 하며 짧게 즐기기도 합니다. 음향시설이 따로 없는데도 무대에서 내는 소리가 맨 뒷자리 좌석까지 아주 잘 들려서 신기합니다. 바로 이 곳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때의 총독인 본시오

빌라도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있는 지역으로, 야포에서 환시를 본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 세례를 받은 백인대장 코르넬리우스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 감금되어 있었던 곳도 이곳 카이사리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며 부셔지는 파도가 참 아름다운 이 곳에 있을만 하셨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십자군 시대 때 지어진 건물의 일부에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방문을

다 마치고 한숨을 돌리며 멋진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몸과 마음을 한층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사리아 유적지의 백미! 수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차를 타고 북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보면 바닷가를 따라 그림처럼 늘어져있는 도수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참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실 때 대답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으셨던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는 그 어떤 때보다도 밝게 웃는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와 ‘어린이 정신’

최대환 신부·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작가 조르주 베르나노스 영성의 근원

열핏 보면 그리 중해보이지 않는 권태와 우울, 그리고 무기력이라는 일상의 악덕이야말로 심각한 영적 위기를 알리는 표지라는 통찰이 베르나노스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태가 마치 녹진한 안개나 소리 없이 퍼져버린 전염병처럼 한 시대를 휘감고 있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빠지는 모습을 영적인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조차 이러한 악덕과 투쟁하고 영적 질병에서 회복되려는 복음적 갈망과 의기가 사라졌음을 통절히 비판합니다. 이러한 시대 진단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소설에서 주인공인 젊은 본당 신부가 최선을 다하며 사목을 하는 가운데 겪는 몰이해와 병고는 한 시대의 악덕과 병고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상징일지 모릅니다. 시대를 거슬러 사람들이 겪는 영혼의 아픔과 우울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투신하는 그리스도인

들이 감내해야 하는 짐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문학적으로 절실하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겁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작품의 분위기가지만 베르나노스는 결코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은총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를 나누고 구분하며 종교적 초월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문학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신앙은 세상을 변화하고자 하는 강한 헌신을 추동합니다. 다만 작가는 은총은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비추고 변화시킨다는 신앙의 확신을 지니고 있고 이를 강렬하게 증언할 따릅니다.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받는 감동은 눈에 띄는 결실 하나 없이 지치고 이해받지 못하고 마침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 젊은 사제의 고단한 삶이 사실은 참으로 신비롭게 하느님 은총이 이 세상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고귀하고 복된 도구였음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이처럼 은총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약함이야말로 만연한 악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작은 표지조차 놓치지 않고 알아보는 영성을 베르나노스는 ‘어린이 정신’이라 부릅니다. 베르나노스의 이 작품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리지외의 소화 데레사 성녀의 ‘작은 길’의 영성을 함께 묵상해 본다면, 이러한 사상의 영성적 깊이와 현실성을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르나노스와 ‘어린이 정신’

베르나노스는 개인적인 서신들에서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가 그의 내면에서 자라나게 된 계기나 이 작품의 근저에 있는 영성이 ‘어린이 정신’에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우리말 번역의 역자 작품해설에는 고맙게도 이러한 그의 생각을 드러내는 여러 대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들을 소개합니다.

“나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지난 겨울 어느 저녁 문득 어디로 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어쨌든 (중략) 붓을 든 바로 그 순간, 내 속에서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 너무나 평범하여 다른 모든 어린 시절들과 닮은 그런 어린 시절, 너무나 평범하여 다른 모든 어린 시절들과 닮은 그런 어린 시절, 그러나 마치 마르지 않는 꿈의 샘에서인 양 내가 써 내려가는 모든 내용을 길어 오는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시다. 내 어린 시절에 본 얼굴들과 풍경들이 한꺼번에 섞여 들고 무의식적인 어떤 기억에 의해 휘저어져 어울려 들어 나로 하여금 지금의 나, 즉 소설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시인이 되도록 해 준, 바로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시다.” (418쪽)

1935년경 어느 귀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위의 내용은, 어린이 정신이 순수한 어린 시절을 잊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와

도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생각은 그의 가장 논쟁이 된 평론이라 할 『달빛 아래의 대 공동묘지』 서문에서 보다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가끔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감히 이름을 붙이지 못한 당신, 상상 속 앙브리쿠르의 친애하는 사제, 당신이 영혼의 침묵,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기도 훨씬 전에 새벽이 오곤 했습니다. 그즈음 당신들은 내 주인이었던 걸까요? 오늘도 당신들이 나의 주인인지?

오! 나는 이런 과거로의 되짚음이 허망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내 삶은 벌써 죽은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 정녕 진실로 죽은 사람은 바로 예전에 나왔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바로 그 어린아이가 내 삶의 머리에 자기 자리를 다시 잡을 것이고, 내 가련한 세월 조각들을 마지막까지 다 모아 들일 것입니다. (...) 요컨대 나는 그의 이름, 어린 시절의 이름으로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린 시절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만큼 정녕, 바로 어린 시절의 언어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 아직도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뒤편 오로지 어린이들, 영웅, 그리고

순교자들에만 속한다는 내 깊은 확신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려 드는 씩씩한 아이러니어.” (420-421쪽)

베르나노스가 가진 어린이 정신에 대한 확신이 가장 감동적으로 드러난 글 중 하나는 역시 역자 해설에서 소개하고 있는 브라질 이민 시절 한 소녀가 이미 유명 작가가 된 베르나노스에게 수줍게 서명을 청하며 내민 앨범에 정성과 애정을 가득 담아 적어준 장문의 글입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가씨, 천성으로 게으른 나는 5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의 앨범 위에 무엇을 써 줄 것인지 혼자 막연히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앨범을 하나 간직하겠다는 의도는 사실 매우 감동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런 것이 바로 어린이 정신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 정신이 그렇듯이 그런 의도는 보통 망신이나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426쪽)

이어 베르나노스는 어린이 정신과 통하는 것은 진정한 시인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역설합니다. 즉,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오직 여전히 어린

이의 정신을 가진 이들과 시인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신비스럽게 연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예술관이자 정치관이며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베르나노스가 소녀에 간곡히 전해주는 조언은 그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평생 진심으로 호소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인들에게 충실하고 어린 시절에 충실하십시오! 절대로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어른들은 어린 시절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읽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신하느님은 고위 성직자, 신학자, 평문가, 역사가, 소설가들, 요컨대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닮아라.” 현대 고위 성직자, 신학자, 역사가, 평문가, 소설가들은 기만당한 어린 시절을 향해 여러 세기에 걸쳐 이렇게나 되풀이 합니다. “우리들을 닮아라.”

(...)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아름다움 모든 것은 인간의 겸손하지만 강렬한 인내와 ‘하느님’의 자비로운 ‘은총’의 신비로운 조화를 통해 우리도 모르는 새 이뤄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행운이 있기를! 우리는 모두 삶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녕 ‘탐욕’과 ‘권태’야말로, 모든 중죄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니만큼.”(428쪽)

여기서 우리는 베르나노스의 ‘어린이 영성’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복음정신을 의미하는 것임을 떠올리게 됩니다(마태 18,1-5 참조). 이제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읽는 마지막 회가 될 다음 달에는 이러한 어린이 정신의 맥락에서 이 소설의 가장 강렬한 장면이라 할 본당신부와 백작부인의 대화를 살펴보고, 소설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은총에 대한 고백의 장면을 살펴보려합니다. ☪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 소확행(小確幸),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강박증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어느덧 ‘행복’은 삶의 과정 중에서 얻는 전리품이 아닌, 그 자체가 삶의 목표인 옥상옥(屋上屋)이 되어버렸다. 주변의 어린 사람들(학생, 인턴, 전공의, 간호사)은 직업적 성취나 이로 인한 자아실현같은 현실적 대상이 아닌 ‘행복’이라는 모호한 실존적 명사가 인생의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1886년 7월 ‘한성주보’에 국내 최초로 등장한 ‘행복’이란 단어는 실제도 없는 가상의 바이러스처럼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은 세속종교가 되어 버려 우리를 스스로 옥죄게 만들었다. 행복교의 교주인 멘토들의 다양한 힐링 레시피는 온 국민이 따라해야 할 필수조건이 되어 ‘행복’이라 쓰여지고 ‘스트레스’라고 발음하게 만들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심리의 바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한다. 뿔속부터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개인적, 공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재조명하며 무의식적으로 인정받기를 희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거나 의미부여가 영구적이지 못할 때, 혹은 타인

과의 비교에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온전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습득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행복’은 어느 정도는 스스로 그 의미를 만들고 가꾸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인 듯하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불행을 안고 있다.”

이런 단어가 있다. floccinaucinihilipilification. (floccus + naucum + nihil + pilus = 양털 한 무더기 + 하찮은 것 + 아무 것도 아님 + 머리 한 가닥=경시(輕視), 무가치 혹은 무의미하게 여김). 작고하신 고우영 화백의 만화 삼국지에서 처음 접했던, 전투에서 탈탈 털린 조조가 뜬 구름을 보고 읊조린 말풍선 속의 단어이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반발하여 삭발하고 승려가 되어 유유자적한 생육신 김시습이 속세를 떠나는 심정이 이럴 것이다.

소확행(小確幸)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1986년 수필 <랑겔한스 섬의 오후>에서 처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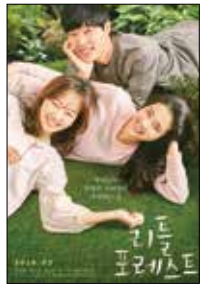
장하였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자기위안적인 성향은 몇 년 전 유행했던 미국 힙합가수 Drake의 노래 The Motto의 한 구절인 “인생은 한번 뿐이야. 이게 인생의 진리지. 옴로”(You Only Live Once, that’s the motto. YOLO!)의 뒤를 이어 30년이나 지난 지금 대한민국 문화계의 주류가 되었다. COVID-19로 심화된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앞날이 불투명해진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처럼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비현실적인 잠언을 부정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벼락거지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현재 자신의 삶에 좀 더 충실하자는 풍조를 만들어 냈는데, 이는 미래를 저버리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일탈이 아닌, 현재의 나를 적절히 위로하여 더 바람직한 나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을 일컫는 내면의 외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확행 역시 YOLO의 토대 위에 성장하게 되었으며 큰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살아 있다는 기분을 만끽하며 존재감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아우르게 만든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Attila Marcel, 2013  
코미디, 드라마 | 프랑스 | 106분



버킷리스트  
The Bucket List, 2007  
모험, 코미디, 드라마 | 미국 | 97분



리틀 포레스트  
Little Forest, 2018  
드라마 | 한국 | 103분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두 이모와 함께 살게 된 폴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사라진 상태이다. 그로 인해 그의 인간관계는 단절되고 모든 일에 무덤덤해지게 된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2013>은 화려한 색채로 꾸며진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를 보는 것처럼 몽환적인 미장센을 선보인다. 마들렌 과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완역자 이외에는 읽기가 불가할 정도로 난해하고 장구한 7편의 연작 소설로서 텍스트의 의미인 ‘직물’ 그대로 촘촘하게 소설 한 권에 인생의 모든 것(자아 회복, 의미의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끝없는 구도)을 기억의 회상으로 구현하여 담으려 하였다. 프루스트는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웃집 프루스트 여사의 집을 우연히 방문한 폴은 신비스러운 정원에서 자신의 성장을 멈추게 했던 과거 기억과 맞서게 된다. 의식 밑 바닥에 흐르는 기억이란 것은 진정제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독약처럼 작용하기도 하므로 인지의 표피로 분출시켜 다시금 판단하여 그때그때 굳건히 버티는 정신적 근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부모의 사고

사에 기인했던 불행한 과거를 털어버린 폴은 과연 혼자 힘으로 관계를 맺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Vis Ta Vie(네 인생을 살아라).” 아름다운 기억은 그 자체가 힐링의 처방전이 될 수도 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명의 노인이 2인용 병실에서 만난다. 6개월 시한부를 선고 받은 사업가 에드워드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카터 역시 같은 선고를 받고 망연자실한다. 일과 결혼한 사업가, 그리고 아내의 빠른 임신으로 원치 않게 공부를 접어야 했던 정비사. 이 둘은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뜯 눈으로 새는 밤이 많아지며 서로 친해지기 시작한다. 자동차 정비사 카터가 45년 전 대학 신입생 시절 철학교수가 내주었던 과제를 회상하며 적었던 버킷리스트를 보게 된 에드워드는 리스트에 몇 개를 추가하고는 함께 떠나자고 제안한다.

<버킷리스트, 2007>는 희망이 있고,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 한 인생은 살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고의 루왁 커피가 고양이 먹은 원두를 배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울음이 나올 때까지 웃던 둘과 카터가 죽기 직전 부탁하여 오랜 기간 연락을 끊던 딸과 만나며 예쁜 손녀딸과 키스를 하던 에드워드,

그리고 마지막 장면 화장된 채 캔에 밀봉되어 히말라야 정상에 놓인 둘의 버킷리스트는 그렇게 완성된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그의 삶을 말해주므로 남겨진 사랑이 있는 한, 두 눈은 감겨도 가슴은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치열하게 살다보면 간과하게 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어떻게’라는 방법론에만 매몰되다 보면 ‘왜’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은 잊게 된다. 전화 한통이나 스마트폰 앱 터치 한번이면 즉시 배달되는 음식들. 그러나 친환경 재료로 정성껏 다듬은 먹거리 한 점은 준비과정 자체가 깊은 울림을 줄 수도 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국의 향내는 80을 바라보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기도 한다.

아등바등 끝이 보이지 않는 서울에서의 모든 삶에 지친 혜원은 마치 패배자처럼 귀농하지만, 생명을 품은 청정한 시골 풍경과 격의 없던 어릴 적 친구들과의 교감, 제법 시간이 드는 요리 준비, 그리고 기억 속에서 이따금씩 터져 나오던 어머니와의 클리셰같은 대화들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진다. <리틀 포레스트, 2018>는 “나를 위한 소중한 한 끼”를 준비하는 주인공의 유유자적한 모습에 보는 내내 허기가 졌다. 가스레인지에서 간단히 요리되

는 편의점의 인스턴트식품이나 고민없이 업으로 주문하는 배달음식이 아닌, 직접 손에 물을 묻히며 소금, 설탕, 조미료는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삶아야 할지 데쳐야 할지 튀겨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삼시세끼는 음식 자체를 넘어 우리 자체가 된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이룬다(What we eat is what we are).” 4계절 풍광을 담으며 가진 게 많아질수록 불행할 수 있고, 버릴 줄 아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느낌의 미학을 몸소 실천해보게끔 자극하는 매우 비자극적인 영화였다.

살다 보면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주위에서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 COVID-19로 인한 일상의 균열이 그랬다. 소소하게 즐기던 수많은 루틴은 어느 순간 증발해버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하릴없이 집과 병원을 오가는 어쩔 수 없는 가정 오타쿠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소화행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요즈음이다. 🍷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교회학자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토마스 데 아퀴노(Thomas de Aquino,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 1225-1274) 성인의 <신학 대전>과 성서의 계시와 고대 이성을 조화시키며 사상사에 가져온 그의 특별한 개혁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자로서의 명성 뒤에는 그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겪었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다. 그가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훌륭한 저작만큼이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교 철학자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이탈리아의 로카세카(Roccasecca)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성인은 가족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1244년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했다. 아들이 가족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종교에 헌신한다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가족은 수도원을 들어가기로 결심한 성인을 납치해 로카세카에 있는 집안 소유의 성에 가두기까지 했다. 게다가 단념시키기 위해 매력적인 하녀들이 그의 시종을

들도록 했다. 토마스 성인은 기도로 여인들의 유혹을 물리쳤으며, 끊임없이 기도했다. 마침내 가족들은 그가 파리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도록 허락했다.

1245년부터 프랑스 파리 대학과 독일 쾰른에서 성 알베르토의 제자가 되었고, 사제품을 받은 성인은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 교수로 활동하였다. 1274년 초 그레고리오 10세 교황의 부름을 받아, 제2차 리옹공의회로 향하던 중 이탈리아 포사노바(Fossa Nuova)의 시토회 수도원에서 병사하였다. 성인은 수도자로, 철학과 신학에 관해 평생 연구와 저술에 매진했다. 성인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신학 대전>을 비롯해 후대에 위대한 저서를 많이 남겼다. 그 결과로 1567년에는 영광스럽게 ‘교회학자(Doctores ecclesiae)’ 칭호를 부여받게 되었고, 이후 모든 대학교와 대학, 그리고 학교의 수호성인으로 선언되었다.



<성 토마스 데 아퀴노의 신격화>, 1631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세비아 미술관

### 말없는 황소

그림에서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의 모습은 다부진 체구에 주로 도미니코 수도회의 흰 수사복과 검은 망토를 입은 전신상으로 그려진다. 그의 상징으로는 스페인 바로크 미술의 대표화가인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Francisco de Zurbarán, 1598~1664)이 그린 작품에서처럼, 서방교회의 교회학자들이 하늘에서 설교하는 토마스 성인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는 신성한 지식과 가르침을 상징하는 태양 또는 별을 가슴에 달고 많은 저작을 나타내는 펜을 들어 올려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영성의 비둘기가 그의 머리 위에 날고 있다. 때로는 황소가 그의 상징으로 그려지는데 그의 별명이 ‘말 없는 황소’였기 때문이다. 그의 스승인 알베르토 성인은 “언젠가는 이 황소



가 그의 울음으로 전 유럽을 뒤흔들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영리하고 머리가 컸던 토마스 성인은 중세의 큰 획을 그었다.

### 진실의 입

그러나 무엇보다도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의 많은 이야기 중 예술가들에게 상상력과 영감을 가장 불러일으킨 것은 그가 뿌려 싹을 틔운 신학사상일 것이다.

이탈리아 피사의 성녀 카타리나 성당 제단화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승리>는 성인을 신학자와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잘 나타낸 작품이다. 그림에서 성인은 도미니코 수도회 복장을 한 채, 손에 책을 잡고 있다. 성인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로부터 받은 빛은 책을 통해 다시 퍼져나가고 있다. 성인이 들고 있는 책은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토마스 성인의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그 아래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그리고 네 명의 복음사가가 있다. 맨 위, 그리스도는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든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지만, 빛줄기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직접 입에서 사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오른쪽 발아래에는 검은 드는 성 바오로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옆으로는 인간 삶의 여정인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상된 마태오 복음사가가 있다.

이어서 황소로 상징된 루카 복음사가가 있는데, 이는 루카 복음사가 사제 즈카르야가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왼쪽 발아래에는 성 베드로가 있고, 그의 옆으로 요한 복음사가가 독수리와 함께 있다. 독수리는 조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지녔는데, 요한 복음서의 신학이 날카롭고 깊다는 의미에서 독수리가 요한 복음사가로 표현된다. 요한 옆의 마르코 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의 광야 설교로 시작하기에 광야의 왕이라 할 사자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책을 펼쳐 성인을 향하고 있고, 그곳에서 발산하는 빛줄기는 성인의 머리에 머무른다.

또한 성인의 양 옆에는 고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학설을 기록한 책을 들고 있으며, 발산된 빛줄기는 성인의 입과 연결된다. 이것은 성인이 성경의 계시와 고대 이성을 조화시키며 그의 사상을 연구했음을 의미한다. 성인의 발아래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대가였던 아랍의 학자 아베로이스(Averroes, 1126-1198)가 누워 있다. 토마스 성인보다 아베로이스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토마스 성인이 아베로이스 사상을 반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토마스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그의 주된 관심사



<성 토마스의 승리>, 1340년 경, 리포 멘미, 프란체스코 트라이니, 목판에 템페라, 성녀 카타리나 성당, 피사, 이탈리아

로 두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

결국,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인의 신학적 체계를 통하여 땅에 뿌리내리게 된다. 이러한 성인의 사상은 그의 발아래 있는 평신도, 수도자, 학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시선은 바닥에 누워 있는 아베로이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의 책으로부터 발산된 빛을 향하고 있다. 빛을 발하는 펼쳐진 책에는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내 입술은 불의를 역겨워한다.”(잠언 8, 7)라고 적혀 있다. ●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세례성사를 축하드립니다.

12월 19일(주일), 13:30 명동대성당에서 노우식 스테파노 신부님 외 직장사목팀 사제단의 주례로 총 15분 세례성사가 있었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회명	SC제일은행	구로구청	국회	서대문구청	총 / 15명
인원	1	1	4	1	
교우회명	서초구청	제주항공	한국은행	-	총 / 15명
인원	3	4	1	-	

### 직장인 금요미사

바쁜 일상 안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풍성한 미사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 일 시: 매주 (금) 12:15
- 장 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흑보리** (*Hordeum vulgare* B)

벼과에 속하는 중요한 식용작물의 하나인 보리는 지역에 따라 늦가을 파종하거나 설 지난 후 파종하기도 합니다. 토종종자인 흑보리는 밀의 5배, 쌀의 16배에 달하는 식이섬유 함량과 비타민E, 칼슘, 철 등 무기질 함량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일반보리의 5배 정도 풍부하고 베타글루칸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보리에 비해 수분흡수율이 높아 쌀과 함께 밥을 지을 때 따로 불리지 않아도 부드럽고 차진 식감을 갖습니다. 이렇듯 효능도 우수하고 겨울철 친환경 농업으로써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한 작물인데 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주곡에 비해 잡곡 소비가 현저히 낮아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또 적은 생산량으로 도정처를 찾기 어려워 농업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토종종자를 통해 생태계에 다양한 생물이 공존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살아갈 때 온전한 생명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농 신규 홈페이지에서  
모임,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생명농산물  
주문하기는  
여기로 오세요~



## Sacred Heart

noun Roman Catholic Church.

the physical heart of Jesus, to which special devotion is offered as a symbol of His love and redemptive sacrifice.

Origin: First recorded in 1755–65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